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5, NT 2의 OT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구약의 배경에서 히브리서 6장,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시점에서 전체 칼빈주의-알미니안 논쟁을 해결하고 이 본문이 어떻게 접근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배경이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주요 목적은 히브리서 6장 4~6장에서 읽은 이 문구에 대한 구약 배경의 가능성과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을 읽을 때 구약의 배경을 탐구하기 전에 먼저 시작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6장은 단순히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있는 일련의 경고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져온 새 언약의 구원인 복음에 등을 돌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장 1절부터 4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구절입니다. 3장과 4장에 또 하나가 있고, 6장에도 있고, 그 뒤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찰, 두 번째 관찰은 이 경고 구절의 한 측면, 적어도 처음 두 개와 마지막 두 개는 저자가 자신의 독자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 광야와 사막을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 두 명을 보내거나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니 그 중에 열 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니 이스라엘이 이를 거절하고 반역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2장, 3장과 4장, 10장과 12장에 있는 모든 경고 구절 뒤에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위해 광야를 거쳐 시내산으로 갔다가 반역하고 들어가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경고 구절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가 있으며, 나는 그것이 그렇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 이야기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히브리서 6장,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진술의 배경을 형성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중 히브리서의 현대 독자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용어와 설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들이 한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깨달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는 것이라고 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라는 이 언어는 아마도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하위 본문을 보면,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빛 기둥을 인도한 빛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저는 출애굽기 본문의 원래 출애굽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편과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후속 설명과 기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최초의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건을 연습하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 아마도 저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언급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빛 기둥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가 그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즉 시편과 다른 본문에서 만나를 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고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은 이 이론, 즉 그들이 성령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중 일부가 예언하게 만드는 성령에 대해 몇 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은 이사야 63장과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기록하거나 연습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3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몇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진실로 내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를 속이지 아니할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도 괴로워했고, 앞선 천사가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로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들어 올려 옛날 내내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을 사막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유지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사야 6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한다는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겪은 경험을 반영합니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는 사실은 율법의 여호수아서에도 묘사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과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모세가 바로와 마술사 앞에서 행한 일,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행한 다른 기적적인 조항과 같은 기적적인 표징을 종종 표징이라고 부르거나 권능과 능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경이로움.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백성의 경험은 다양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들은 배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반영하거나 배교하는 것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 중 일부를 언급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흥미롭게도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9장은 리허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여행하는 장면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서요. 사실 그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적을 연습합니다. 당신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조상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나이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오만하게 대했는지 당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돌을 큰 물에 빠뜨리심 같이 추격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 주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계속해서 율법 수여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 4-6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상황에 비추어 독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점을 보여주는 것은 둘 사이에 유형학적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섭리, 빛, 깨달음이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나누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반역하고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독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독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경험하였느니라.

복음을 통한 깨달음. 하늘의 선물을 맛보세요. 이 모든 기적적인 힘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6, 4-6장이 좀 다른 색조를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 읽을 때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자는 다른 모든 경고 구절에서 구약의 예를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애굽에서 나온 광야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나 가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그러한 사건들에 비추어 6장, 4-6장을 읽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신약성서의 독자들과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경험을 요약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유형학적으로 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려하고 싶은 마지막 본문이나 고려하고 싶은 마지막 예는 요한계시록의 일련의 구절, 즉 몇 구절입니다. 즉, 마지막 두 장을 보면. 21-1장과 22-5장의 마지막 환상.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인 22절 18절과 19절에 짧은 경고가 있습니다. 21-1장부터 22-5장까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 책의 절정으로 기능하는 긴 확장된 환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7장과 18장의 대응 부분을 형성하는데, 여기서 저자는 여자로 상징된 또 다른 도시, 즉 아마도 로마를 의미하는 매춘부 바벨론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은 신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공간, 즉 여성으로 묘사된 또 다른 도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 전체의 일종의 절정적 비전입니다. 이것이 21-1장부터 22-5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최종 보상이자 최종 구원이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는 데 꽤 유익한 연구 분야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구약 본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결코 구약성서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저자가 인용 공식을 사용하여 소개하지 않더라도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르고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간접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성경 본문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학자는 흥미롭게도 제 생각에 그의 말이 사실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1장과 22장의 구약성서 암시가 모두 제거되면 사실상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구절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자가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을 자신의 절정적 비전으로 엮어 엮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았듯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본문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본문을 취하여 때로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개념, 동일한 사상을 언급하고 함께 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요한은 다양한 구약성서의 본문, 특히 예언서에서, 가끔은 서술문에서 모아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상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장대하고 절정적인 예언적 비전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한 구속 활동의 목표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단지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비전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신약성서나 구약성서의 본문을 살펴보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중 일부는 명백하고 일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약성경 본문이 어떻게 제시되고, 활용되고, 심지어 변형되고 변경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텍스트를 살펴보고 몇 가지 주요 기능을 강조하겠습니다. 때로는 한두 개의 텍스트만 언급하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구약 본문의 전체 부분이 요한이 본 것과 그가 쓴 것에 대한 모델이나 기초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십시오.

다소 쉽고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첫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첫 구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갔음이라. 멀리,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문구를 볼 것이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5장의 첫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1절은 이사야 65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장과 25장을 다시 이사야가 기대하는 새 창조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21장과 22장 전체가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모든 결과와 이 땅을 괴롭히는 것들이 변화되고 제거된 것입니다. 동시에 21장과 22장은 이사야 65장에 대한 암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1절 끝 부분에 나오는 비밀스러운 문구인데,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하늘과 땅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거의 공격할 뻔 하였고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의 환상에서 그의 종말론적 결말은 21장과 22장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안은 고대 세계에서 바다가 혼돈과 악의 개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심지어 다른 문학에서도 바다는 악의 장소였고, 어둠의 장소였으며, 깊음,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바다괴물이나 짐승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다른 곳에서는 혼돈의 괴물, 악한 짐승, 악과 혼돈과 적대감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따라서 바다는 계시록에서 혼돈을 나타내는 다른 본문에 비추어 자주 등장합니다. 혼돈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바다가 제거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 글을 읽고 걱정을 했습니다. 새 창조에는 바다가 없을 것인가? 글썄, 나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텍스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다는 아마도 악과 혼돈, 즉 신에게 적대적이고 적대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누리고 상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관찰로 돌아가서, 만약 구약성서의 모든 본문을 없애 버리면 사실상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중 하나는 이 많은 본문들입니다. 21장의 처음 여덟 절에 있는 이 많은 본문들은 이사야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이 이 처음 여덟 구절과 다른 곳인 21장과 22장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통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이사야서에서 그 뒤에 구약의 암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이사야서가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 번 그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기의 일부는 바다가 사라진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듭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다가 마르고 물이 마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홍해가 마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데 장벽이었던 바다가 제거되어 결국 그들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것에 대한 장벽이었고 적대적이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갈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언급은 이사야서 51장, 9장,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읽는 내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요한이 21절 1절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사야의 구절로 되돌아간다는 개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1절과 9절.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21절과 9절. 깨어라 깨어라 힘을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오 주님의 팔이시여, 지나간 날과 옛날과 같이 깨어나소서. 라합을 쳐부수고 그 괴물을 꿰뚫은 바다 괴물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바다와 큰 깊음의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사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이가 당신이 아니시니까? 주님의 대속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속에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며 시온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서 라합, 즉 홍해에 대한 언급은 바다를 말리거나 바다를 가르신 분이 아니시냐는 바다 괴물 중 하나인 라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의 원래 출애굽기인 홍해도 이미 이사야 51장에서 혼돈과 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깊음, 바다 괴물의 고향,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것, 혼란스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21-1장에서 요한이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출애굽의 모티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새 창조에 있고, 하나님은 다시 새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 악의 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장벽이 되는 바다를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가서 그들의 유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첫 출애굽

때 바다가 장벽이요 적개심과 혼돈의 바다였던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려 사람들이 건너가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이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제하여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들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실 이사야 51장에서 보면, 시온을 건너 회복된 결과는 기뻐하고 노래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는 바다가 더 이상 없고 저자가 말하는 바를 주목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옛 질서 때문이니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1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 혼돈과 악, 가정을 나타내는 상징적 홍해가 마르는 출애굽의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적대적이고 적대적이며 그들이 상속 재산을 누리는 데 장벽이 되는 바다 괴물의 것입니다.

이제 첫 출애굽 때와 같이 제거되고 말랐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서 약속의 땅, 곧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두 구절로 넘어가면, 21장과 3절에서 흥미롭게도 언약의 공식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새 언약 공식이 나오는 에스겔 37장과 27절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 37장에서 새 언약 공식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집니다. 새로운 사원.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순회하며 측량하고, 문과 성벽과 새 성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측량합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인용한 21장 3절의 언약 공식에 이어, 그 직후 9절부터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의지하여 천사가 요한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데려간다. 그런데 지금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본따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때에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샘에서 흘러나옴을 내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어린양 하나님의 보좌 큰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민족 국가. 그 표현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전체 부분은 21장 3절의 언약 공식으로 시작하여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21장과 22장의 나머지 대부분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잎사귀들을 주는 생명강을 본다.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반영하고 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7장, 40장부터 48장은 종말론적 구원과 회복에 대한 요한 자신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모델,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순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는 언약 공식은 요한계시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37장의 언약 공식과 성전이 아니라 성의 회복과 측량이 뒤따릅니다. 자, 다시,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구약성경 본문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말했듯이 에스겔과 달리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요한은 21장 22절의 환상에서 그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에 별도의 성전이 있는 에스겔과 달리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은 이제 옛 창조,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가 폐하여지고, 애초에 성전이 필요하게 된 바로 그 것이 폐하여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시오.

따라서 John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도시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거하시는 하나의 큰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 변화된 창조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에스겔 40-48장의 성취를 통해 그의 백성과 직접 거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성전과 관련하여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제 요한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 이유는 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전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마지막 환상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명확하지 않은 구약의 동일한 구절에 있는 또 다른 예는 요한이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특히 9절부터 시작하여 그는 그것이 1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초에 어느 지파나 어느 사도가 함께 가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새 예루살렘은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개의 문과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12기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문이 진주, 12개의 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그 성이 금 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귀중한 보석이나 보석 이미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도 역시... 에스겔 40-48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보석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럼 존은 그걸 어디서 얻나요? 특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54장에서 보석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석의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그 문은 보석으로 식별됩니다.

그 기초는 사파이어입니다. 복원된 예루살렘 도시의 여러 부분인 홍벽은 서로 다른 돌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54장에는 문과 기초, 문과 기초가 모두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에스겔 40-48장에 더해 이제 이사야 54장을 가져와서 이러한 귀중한 돌과 보석에 관한 회복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이 그 문을 12지파와 사도들의 기초로 식별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본문, 즉 사해 두루마리 공동체가 이사야 54장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석한 이사야 페세르와 매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이사야 54장의 여러 부분, 즉 문과 기초를 공동체의 창립 구성원으로 은유적으로 식별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도시의 요소, 특히 기초와 문을 창립 구성원, 새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의 핵심 구성원으로 식별함으로써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진주문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 5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은 이제 요한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그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 본문과 회복의 비전을 취하여

이제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함께 엮어 선지자들에게서 예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새 창조 가운데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절정에 달하는 성취를 발견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더 나아가 이사야 54장의 기초가 실제로 기초석이며 어린 양의 12사도임을 언급한 후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들을 특정 돌로 식별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기초가 있는데 이사야 54장을 해석하여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자세히 식별합니다.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니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바로 거기서 멈출게요. 그러나 당신은 그림을 얻습니다. 그는 12개의 기초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특정 돌로 식별합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12개의 보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28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도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에덴동산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요점은 요한이 이사야 54장에서 취한 어린 양의 사도인 기초를 더 확인함으로써, 그 12 기초를 에스겔과 같은 본문에서 출애굽기의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돌로 더 확인함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도시를 순수함의 측면에서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설명을 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금속 중 하나가 금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도시는 빛나고, 도시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거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대중적인 언어와 황금의 거리를 걷는 우리의 노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성서에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적 성격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개의 돌과 관련하여, 금은 성막과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특히 금의 거리에서 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은 그 도시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방법이면서도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전의 성취이다. 이제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발견한 금에 대한 첫 번째 언급 중 하나가 구약성서의 맨 처음, 즉 맨 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돌보아야 할 심겨진 에덴동산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2장에서 10절에 주목합니다. 동산으로 들어가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 거기서부터 네 동산으로 나뉘었느니라 원류.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좋았고 방향족 수지와 마노와 다른 보석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에덴동산과 관련하여 금의 존재를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새 예루살렘에 금의 특징을 갖게 됨으로써, 특히 저자가 에스겔 47장에 분명히 의존하고 있는 22장에서, 그러나 22장에서도 저자는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요한은 에스겔과 같은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언급합니다.

저자는 또한 생명나무를 언급하면서 에덴동산과 관련된 금까지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회복이나 성취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이요, 이곳은 회복된 에덴, 곧 에덴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 이제 마침내 회복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제 성전으로 묘사되고 더 나아가 에덴동산의 성취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된 백성을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22장의 끝 부분인 1-5절, 22-4장에 이르도록 몇 가지 다른 예를 들기 위해 저자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제사장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 즉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쓴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구약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하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약 관계에 거할 것이며 이제 그 목표와 절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본 비전 중 새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관심의 초점이었던 구약성경 본문과는 달리,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 현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이방인 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구약성경 본문을 가장 분명하게 끌어내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이고 최종적인 회복에 포함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상상하는

구약성서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의. 그래서 예를 들어 21장에서 그는 24절부터 시작하여 여러 본문을 인용합니다. “만국이 그 빛 곧 새 예루살렘의 빛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성문은 낮에도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음이라.

이사야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며 아마도 다른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리로 들어가려니와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구약의 예언 본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본문을 예상하여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덴동산이나 출애굽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에서 나온 구약의 내러티브 텍스트로 채색된 수많은 구약의 예언 텍스트를 모아서 이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하나의 장대한 비전으로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십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끌어내고 싶은 마지막 예는 책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흥미로운 언급을 책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5절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마지막 환상의 끝 부분에서 일련의 최종 지시와 경고, 요한에게 주어진 지시,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봅니다.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예언의 책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곧 이 책에 기록된 21장과 22장의 내용이니라 .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며, 때로는 신약성서나 구약성서의 정경에 더 많은 책을 추가하지 않거나, 책을 가져가거나, 요한계시록에서 책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단어를 빼거나 섹션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보통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더하는 다른 이단이나 거짓종교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정경. 그래서 그것은 종종 18과 19가 취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요한계시록이나 완성된 성경 정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뺄 위험이 있는 외부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사실일 수도 있고, 요한이 책을 실제로 변조하고 책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했을지라도, 나는 우리가 이 신약성서에 비추어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즉,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의 책에서 가감하는 것에 관해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가 구약의 율법과 관련하여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4장과 2절입니다. 그리고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신명기 12장과 32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매우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32절은 모세의 언약과 율법 준수의 맥락에서 다시 읽혀집니다. 32절.

29장과 30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땅에 거주하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후에 너희는 삼가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신들이나 그들의 신들을 좇아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느냐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방식대로 경배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라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딸을 불에 태워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32절. 내가 율법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내 생각에 요한은 모세 율법을 순종 하는 맥락에서 신명기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책, 그의 예언을 더하고 빼는 언어를 얻었습니다. .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두 곳 모두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덧셈과 뺄셈은 말 그대로 지우개로 단어를 더하거나 없애거나, 단어의 일부를 지우거나, 추가 법칙이나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더하기와 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율법을 더 추가하거나, 추가로 또는 추가 요구 사항으로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여 율법에서 빼거나, 가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장, 19장에 이르러서 그가 그들에게 더하고 빼지 말라고 경고할 때, 나는 그가 그것을 신명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책에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즉, 다른 것, 특히 우상 숭배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2장에는 우상을 좇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책에 추가하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그것을 방치하고 무시하고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주로 책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고 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추구하지 말라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독자들의 맥락에서는 이교 신 숭배와 황제 숭배가 책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순종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움츠러들음으로써 그것을 빼지 마십시오.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에 더해지는 것은 18절에서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그 책의 말씀을 들었겠는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부인이나 이교 관찰자나 이교 숭배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종교나 사교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18절과 19절은 요한계시록 1장과 3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엔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니 이 사람이 이 예언을 실제로 회중에게 읽어 준 자였을 것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약성경 책은 전해지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읽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읽었을 것이고, 모인 회중이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3을 주목 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안에 기록한 것을 간직하라.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은 이 책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와 저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실천하기를 거부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아마도 로마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 말씀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또는 대신에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를 대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교 신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숭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기타 종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며, 그 대신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신약성서의 많은 예입니다.

구약성서 본문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뒤에 있는 구약성서 본문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내가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야 하는 많은 예입니다. 신약성서 본문? 구약의 모든 본문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배경에 숨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따라서 단순히 구약성서의 구절을 식별하고 저자가 환상을 의도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환상 발견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확실한지,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의 해석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구약의 환상을 보지 못한 것과는 반대로 이 본문에서 구약의 환상을 찾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신학적, 구약 환상의 해석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성서의 구약성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다시 한 번 중요한 해석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해석 과정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해석 과정의 측면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신학적 해석으로, 본문을 역사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본문을 성경으로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화와 적용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 다음 저는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논의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방법론을 종합하고, 해석 방법이 어떤 모습일지, 이 모든 원칙을 구현하고, 그런 다음 두 개의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 실제로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